

##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려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안타깝게도 남북한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작년부터 중단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개성공단마저 자유로운 통행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실현된 남북간 신뢰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는 느낌이다. 향후 PSI 참여문제 등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주변국 중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이다. 유엔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시나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이다.

긴장고조 계속되면 남북한 모두 경제적 타격

주변국들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반도에는 북한을 중심으로 협상과 긴장 고조라는 이중적 양상이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는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한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행동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동 문제와 경제난에 봉착한 미국은 북한과의 갈등을 확대시킬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갈등과 대립 양상이 보다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을 해소해 줄 있는 협상 당사자로 미국을 선택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의 긴장감 조성은 북미 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남한 역시 특별한 명분이 없이 당장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로켓 발사 이후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는 동안 남북한은 오히려 대립 관계가 심화되는 불안한 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지난 90년대 초 노동1호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남한을 배제한 북미 간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기세 다툼으로 인해 남북간 갈등은 더욱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남북한의 극단적 대치 현상은 북한에게 심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남북 간의 대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상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한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과 서로 신뢰감을 쌓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남한은 북한보다 30배나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UN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한은 북한과 더불어 지내야 한다. 남북한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양측간에 형성된 오해와 불신을 점진적이라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는 인도적 감성적 미래지향적 차원의 교류만큼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

5월 파종기 앞두고 비료부터 지원하자

우선 대한적십자사가 나서면 어떨까 싶다. 적십자는 특정 정부와 관계가 없는 국제단체로서 전쟁 중에도 적국에 파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의 첫번째 사업으로 5월 파종기를 앞두고 4월까지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료를 무조건 보내는 것을 추진했으면 한다.

두번째로는 사심없는 모성애를 지닌 여성단체들이 거들어야 한다. 영양상태가 나쁜 북한의 영유아 돕기운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에 여성들이 앞장서는 것이다.

세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후손들의 번영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을 찾아야 한다. 이 중의 대표적인 분야가 녹색성장이다. 민간 차원의 북한에 나무 심기 운동을 확대한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신뢰 기반이 자연스럽게 복구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